

특집 I

□ 86년 石油政策 □

86년 石油製品 需給計劃

南宮堅

(動力資源部 石油需給課長)

I. 머리말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86년도의 석유제품수요는 작년도인 85년도 수요 191,689천배럴(525천B/D)보다 약 1.7% 증가된 194,894천배럴(534천B/D)로 추정된다. 이는 79년도에 몰아닥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脫石油政策 및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영향으로 8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석유류수요가 3년동안 전년대비 감소현상이 지속되다가 감소추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회복세로 접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脫石油政策과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총 에너지중 석유의존도를 작년도의 48.7%에서 금년도에는 46.2% 수준까지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1〉 참조).

86년도 석유류수급계획을 기술하기에 앞서 지난 85년도의 수급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85년도의 석유제품 수급실적

1. 수요측면

지난 85년도의 석유제품 수급계획상 수요는 국제石油價 및 수급안정과 국내경기의 회복세 등에 따른 수요증가 측면과, 脫石油전원개발계획·산업용 연료의 脫石油化 추세,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추진으로 인한 수요감소 측면을 감안, 84년도 수요보다 3.3% 증가된 200,948천배럴(551천B/D)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산업체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소비절약 그리고 脫石油전원개발 추진에 따른 발전용 유류의 대폭적인 감소 등으로 계획보다는 4.6% 감소하고 84년 보다는 1.5% 감소된 191,689천배럴(525천B/D)에 머물렀다.

소비경향을 분기별로 살펴 보면(〈표-2〉참조) 연초이래 계속된 경기둔화로 상반기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4.1%가 감소하였으나, 환율실세화를 통한 수출경쟁력제고, 민간투자활성화, 공공사업확대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전년동기대비 1.2%가 감소하여 연간 누계로는 1.5% 감소하였다.

85년도 소비동향을 주요 油種別로 살펴보면(〈표

〈表- 1〉 연도별 석유제품 수요변화 추이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수요 (천Bbl)	164,255	185,378	183,498	182,252	181,168	191,293	194,559	191,689	194,894
전년대비 증감률 (%)	14.7	12.9	△ 1.0	△ 0.7	△ 0.6	5.6	1.7	△ 1.5	1.7
석유의존 도 (%)	63.5	62.9	60.3	58.4	58.0	56.5	52.3	48.7	46.2

〈表- 2〉 85년도 분기별 소비실적

(單位: 천Bbl)

구분	분기별	(單位: 천Bbl)			
		1 / 4	2 / 4	3 / 4	4 / 4
당분기	84실적 (%)	51,749 (11.6)	46,334 (△1.7)	45,331 (△0.6)	52,299 (0.1)
	85실적 (%)	49,292 (△4.7)	44,767 (△3.4)	45,312 (△0.04)	51,164 (△2.2)
누계	84실적 (%)	51,749 (11.6)	98,083 (4.9)	143,495 (3.2)	194,559 (1.7)
	85실적 (%)	49,292 (△4.7)	94,059 (△4.1)	139,390 (△2.9)	191,689 (△1.5)

註: (%)는 전년대비 증감률

〈表- 3〉 유종별 소비실적

(單位: 千Bbl)

연도 유종	1983		1984		1985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휘발유	4,623	△ 0.9	5,395	16.7	6,911	28.1
등유	7,823	2.3	8,044	2.8	7,784	△ 3.2
경유	44,767	10.1	49,906	11.5	52,006	4.2
B-A	1,969	△ 9.6	1,994	1.3	1,856	△ 6.9
B-B	829	△ 5.4	927	11.8	1,015	9.5
B-C	88,025	△ 1.7	79,751	△ 9.4	70,651	△11.4
Jet A-1	3,563	9.8	3,701	3.9	4,226	14.2
Jet 4	3,969	33.0	4,180	5.3	3,398	△18.7
프로판	3,947	38.4	5,304	34.4	6,809	28.4
부탄	5,981	43.7	6,897	15.3	7,507	8.8
나프타	22,858	15.1	25,105	9.8	26,158	4.2
용제	953	88.0	800	△16.1	435	△45.6
아스팔트	1,985	△ 1.6	2,555	28.7	2,933	14.8
계	191,293 (524)	5.6	194,559	1.7	191,689	△ 1.5

- 3>참조) 제 2 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던 휘발유는 사용자 스스로의 소비절약 및 정부의 영업용 휘발유차량에 대한 LPG차량으로의 전환정책 등으로 인하여 80년도부터 3년간 그 소비율이 연평균 13% 정도씩 감소하였으나 84년도부터 자가용차량의 급증 및 유사휘발유 사용단속 등으로 휘발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85년도에는 전년대비 28.1%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로 취사·난방용연료인 등유는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 추세로 인한 LPG의 공급 확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정상업용 에너지 源別 수요구성비에 있어서도 石油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연탄과 전력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유는 예년의 2~4% 신장세가 83년도부터 차량의 급증 추세에 따라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오다 85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4.2%의 증가에 그쳤다.

또한 81년도 부터 2년동안 4%씩 감소해 오던 나프타수요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유분업계의 풀가동에 힘입어 83년도에는 무려 15.1%, 84년도에는 9.8%의 증가를 나타내어 국내 나프타수급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으나 85년은 4.2%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LPG도 전년대비 17.3%의 큰폭으로 증가하여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 4〉 연도별 B-C유 수요 구성비

(單位: 천B/D)

구 분 \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제 품 수 요	503	499	496	524	532	525
B-C 유 수 요	255	254	245	241	218	194
B-C유구성비(%)	50.7	50.9	49.4	46.0	41.0	37.0
기타유구성비(%)	49.3	49.1	50.6	54.0	59.0	63.0

한편 脫石油政策의 추진에 의하여 83년 이후 매년 큰폭으로 감소해오던 B-C油는 85년도에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油類수요구조의 변화, 즉 重質油 구성비의 감소현상과 輕質油 구성비의 증가 현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총 석유제품 수요중 B-C유 수요구성비는 82년에 50% 수준이었던 것이 85년도에는 3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4〉참조).

2. 공급측면

석유제품수요가 84년도대비 1.5%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85년도의 전체 원유투입량은 201,657천배럴(552천B/D)로서 84년대비 0.1% 정도 감소된 수준이다. 그러나 임가공원유처리량 32,570천배럴(89천B/D)을 제외할 경우, 內需원유처리량은 169,087천배럴(463천B/D)이며 임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인 23,808천배럴의 정제에 소요된 24,693천배럴만을 감안할 경우 실제 內需用 원유처리량은 176,964천배럴(485천B/D)로 전년대비 1.4% 감소되었다.

이렇게 임가공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국내수요의 감소로 원유투입량이 약간 감소됨에 따라 精油社의 가동율도 84년도 수준인 70% 정도에 머물렀으며(임가공 제외시 59%임) 그중 임가공으로 인한 가동율은 12% 수준으로서 精油社의 가동율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유처리량의 감소로 내수제품 생산량도 84년도 대비 0.5%가 감소된 171,665천배럴에 그쳤는데, 국내생산 부족분인 나프타와 LPG 및 저유황유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수입량은 22,668천배럴로서 84년 대비 7.1% 감소된 때문이며, 수입량의 감소원인은 처리원유의 輕質化에 따른 LP

G 생산량의 증가 및 임가공제품의 內需 전환 등에 기인한다.

한편 제품 수출량은 임가공 수출량의 증대에 따라 84년대비 7.6%가 증가된 25,884천배럴이나 되었으며 수출액면에서도 7억3천만불이 되어 수출 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표-5〉참조).

〈表 - 5〉 85년도 수급실적(내수)

(單位: 千Bbl)

구 분 \ 연 도	1984	1985	전년대비 증감률%
원 유 처 리 량 (천B/D)	179,504 (490)	176,964 (485)	△ 1.4
제 품 생 산 량	172,483	171,665	△ 0.5
제 품 수 입 량	24,393	22,668	7.1
제 품 수 출 량	24,053	25,884	7.6

원유 임가공 추진현황

(單位: 千Bbl)

구 분 \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계획)
원 유 처 리	10,078	25,373	28,317	33,333	41,365
생 산	9,726	24,484	27,312	32,139	39,885
수 출	4,579	15,904	21,633	24,794	31,550
잔 류	5,147	8,580	5,679	7,345	8,335

Ⅲ. 86년도의 석유제품 수급계획

1. 수요추정 내역

86년도의 우리나라 석유제품수요는 전년대비 1.7% 증가된 194,894천배럴(534천B/D)로 전망되며 동수요중 에너지油는 162,993천배럴로 0.5% 증가되고 非에너지油는 31,895천배럴로 전년대비 8.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은 지난해 OPEC국들의 원유생산 상한선 초과생산 등으로 현물 시장가격이 계속 公式價를 하회하고 있어 油價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는 70년대 평균 3% 수준정도에 머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非OPEC국들의 산유량 증대와 OPEC국들의 제정압박에 의한 시장 확보 정책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油價도 현OPEC 공식가격 보다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86년중 국제에너지 시장은 85년보다 상당한 폭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수요증가 측면으로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7%, 광공업성장률 8%로 전년도 수준보다 2~3%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과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가용수요의 잠재력으로 차량수요는 전년대비 약 2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석유화학용 나프타수요도 전년도보다 10%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제품 수요감소 측면으로서는 우리나라 전체 油類수요의 약 15%를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가 脫石油化政策의 추진으로 石油類에서 원자력 및 유연탄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전용 연료는 전년대비 18.3% 정도 감소될 전망이며 정부의 석유의존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인 산업용 연료의 타연료 대체에 따라 石油類의 사용은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의 에너지절약시책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주택구조가 중전의 에너지 다소비 형태에서 점차 에너지절약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제반수요감소요인도 油種別, 부문별, 용도별로 충분히 고려하였다. 따라서 올해의 석유제품 수요는 전년대비 1.7%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발전용 연료유 수요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5.1% 정도 증가되는 수요인 것이다.

[유종별 제품수요]

13개 油種의 석유제품을 용도별로 대별하면 에너지油와 非에너지油로 구분할 수 있는데 86년도의 총제품수요 194,894천배럴 중 휘발유, 등·경유, B-C油 및 LPG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油(10개油種)는 전체 수요의 83.6%인 162,999천배럴로서 전년대비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제트유, LPG 등 輕質연료유는 약 8.7% 수준 증가하나 重質油가 9.3%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각 油種別로 살펴 보면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유, B-A油, B-C油만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고 나머지 油種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B-C油는 감소폭이 9.6% 수준인 반면 휘발유와 LPG, 제트유는 휘발유 유사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차량수요증가 및 여객·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18%, 18.2%, 1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를 주축으로 하는 非에너지油는 전년대비 8% 증가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나프타의 석유화학 및 비료공업용 등의 수요증가에 기인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86년도 油類수요변화추이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輕質油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重質油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여 輕質油와 重質油의 구성비가 작년도의 60:40에서 64:36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2. 수급계획 내역

가. 개요

86년도 석유제품의 수급계획은 총제품수요 194,

<表-6> 1986 주요지표 비교

구분		연도	
		1985(잠정)	1986(계획)
GNP성장률(%)		5.0	7.0
광공업성장률(%)		5.0	8.0
제조업성장률(%)		5.0	8.0
에너지원별 구성비(%)	석유	48.7	46.2
	유연탄	17.5	17.0
	무연탄	21.2	21.4
	원자력	7.4	10.3
자동차보유(천대)		1,122 (17.9)	1,324 (18.0)
- 휘발유용		469 (23.8)	560 (19.5)
- 경유용		557 (15.3)	658 (18.1)
- LPG용		96 (6.7)	106 (10.4)
발전용B-C유수요 (천Bbl)		27,389 (△26.0)	22,087 (△19.4)

註: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表 - 7〉 1986년 석유제품별 수요

(單位 : 천배럴, ()구성비, %)

연 도		1985(잠정)		1986(계획)	
		1985(잠정)	전년비(%)	1986(계획)	전년비(%)
에너지油	휘 발 유	6,911 (3.6)	28.1	8,154 (4.2)	18.0
	등 유	7,784 (4.1)	△ 3.2	7,609 (3.9)	△ 2.2
	경 유	52,006 (27.1)	4.2	54,965 (28.2)	5.7
	B - A	1,856 (1.0)	△ 6.9	1,768 (0.9)	△ 4.7
	B - B	1,015 (0.5)	9.5	1,042 (0.5)	2.7
	B - C油	70,651 (36.9)	△11.4	63,842 (32.8)	△ 9.6
	Jet A-1	4,226 (2.2)	14.2	4,694 (2.4)	11.1
	J P - 4	3,398 (1.8)	△18.7	3,998 (2.1)	17.7
	프 로 판	6,809 (3.6)	28.4	8,604 (4.4)	26.4
	부 탄	7,507 (3.9)	8.8	8,323 (4.3)	10.9
소 계		162,163 (84.7)	△ 2.4	162,999 (83.7)	0.5
非 에너지油	나 프 타	26,158 (13.6)	4.2	28,880 (14.8)	10.4
	용 계	435 (0.2)	△45.6	415 (0.2)	△ 4.6
	아스팔트	2,933 (1.5)	14.8	2,600 (1.3)	△11.4
	소 계	29,526 (15.3)	3.7	31,895 (16.3)	8.0
합 계 (천B/D)		191,689 (100) (525)	△ 1.5	194,894 (100) (534)	1.7

〈表 - 8〉 1986년 석유제품 수급계획

구 분	공 급				수 요			연말재고
	연초재고	생 산	수 입	계	내 수	수 출	계	
물 량(천Bbl)	10,101	177,983	23,232	211,316	194,894	6,297	201,191	10,125
전 년 대 비(%)		(3.7)	(2.5)	(3.7)	(1.7)	(203.3)	(3.8)	

894천배럴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총수요의 약 91%에 해당하는 177,983천배럴은 산유국에서 原油를 도입하여 정제 제품으로 생산, 공급하고 일부 부족분은 제품을 수입하여 충당할 예정이며 연말재고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표-8〉 참조).

나. 精油社 가동

전술한 177,983천배럴의 석유제품을 국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원유수요는 전년대

비 2.3% 증가된 181,056천배럴(496천B/D)이다. 그러나 86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유임가 공수출이 추진되어 임가공을 포함한 원유수요는 213,784천배럴 정도가 되어 전년도 실제 원유처리량 201,657천배럴 보다 6%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同물량은 정부가 石油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의 추진으로 기 확보된 물량과 세계원유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한 저렴한 현물시장의 原油로 조달할 계획인데 순수현물시장을 이용한 원유공급은 85년도의 30% 수준에서 86년도에는 40% 수준으로 확대되어 그

비중이 상당히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임가공 수출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精油社의 가동율은 전년도 70% 수준보다 4% 높은 74% 수준이 될 전망이며 임가공을 제외할 경우 6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 제품수급

대부분의 선진석유소비국가가 채택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石油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방안으로서는 가능한한 장기공급계약으로 확보된 原油를 도입하여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현물시장에서의 원유도입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비자정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제품수입에 큰 비중을 둘 때에는 국내 정유공장의 유희화는 물론 원유 한방울 나지 않는 非産油國으로서 국제석유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물

량 및 가격면에서 안정수급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석유제품의 수출입은 소비자정제방식 하에서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한 완충장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국내생산 공급을 위주로 한 수급계획하에서 제품의 수출입은 자연히 규제하게 되는 바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油種別 생산수율과 소비구조와의 차이, 계절 변동에 따른 시기적 수요증감 및 精油社의 원유투입 계획의 변동에 의한 수급불균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油種의 과부족물량 즉 B-C油, 나프타, LPG 및 경유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저유황연료유의 도입을 위주로 허용해 나가되 최근 국내외의 유류수급이 매우 안정상태인 점을 감안, 국내수급에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精油社의 자율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정부의 수급통제를 가급적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표-9〉 참조).

〈表 - 9〉 1986년 석유제품 수급계획

(單位: 천배럴)

제 품 별	수 급	수 요	공 급				수 출	연 말재고
			연초재고	생 산	수 입	계		
에 너 지油	휘 발 유	8,154	635	8,122	—	8,757	—	603
	등 유	7,609	472	7,638	—	8,110	—	501
	경 유	54,965	2,637	53,719	1,692	58,048	790	2,293
	B - A	1,768	124	1,775	—	1,899	—	131
	B - B	1,042	105	1,042	—	1,147	—	105
	B - C油	63,842	3,617	62,724	6,750	73,091	5,459	3,790
	JETA-1	4,694	267	4,719	—	4,986	—	292
	J P - 4	3,998	242	3,994	—	4,236	—	238
	프 로 판	8,604	557	2,290	6,314	9,161	—	557
	부 탄	8,323	381	6,147	2,176	8,704	—	381
소 계	162,999	9,037	152,170	16,932	178,139	6,249	8,891	
非에너지油	나 프 타	28,880	931	22,704	6,300	29,935	—	1,055
	용 제	415	41	470	—	511	30	66
	아스팔트	2,600	92	2,639	—	2,731	18	113
	소 계	31,895	1,064	25,813	6,300	33,177	48	1,234
합 계 (천B/D)	194,894 (534)	10,101 (28)	177,983 (488)	23,232 (64)	211,316 (578)	6,297 (17)	10,125 (28)	

라. 저유황연료유 공급계획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및 차량증가 등으로 大都市와 공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도가 증가되어 공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황산가스(SO₂)의 오염도를 국제환경기준치인 0.05ppm 이하로 감소시켜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지난 81년도 부터 서울지역과 울산화력발전소에 저유황연료유(B-C油와 경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대기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매년 확대 공급하여 옴에 따라 현재는 인천 및 경기지역 일부

를 포함한 수도권전역과 부산, 울산 및 경남·북지역과 충남, 전남 지역까지 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은 전국차량으로 확대공급하고, 서울지역은 전사용자에게까지 확대공급 하고 있어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저유황연료유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油類에 의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둔화 내지는 감소되고 있어 그야말로 저유황유의 확대공급이 大都市 및 공단 주변의 대기오염도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86년도의 저유황연료유 공급확대 문제는精油社의 저유황원유 확보상태, 탈황 및 임가공 실시 등 저유황유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저유황유의 공급율을 B-C油는 60%, 경유는 75%까지 상승시킬

〈表-10〉 연도별 저유황유 확대공급 현황 및 계획

(單位：공급률<공급물량：천B/D>)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계획)
경 유	○서울지역차량	○수도권전역(차량 및사업자) ○부산지역차량	○경남·북차량추가	○전남·북및충남·북차량추가	○서울지역전사용자 ○강원, 제주지역차량(전국차량확대)	
	10% (11)	23% (25)	35% (43)	43% (57)	69% (98)	75% (111)
B - C 油	○서울지역 ○서울화력	○수도권전역 ○울산·인천화력	○울산·울주군 ○좌동	○부산, 대구추가 ○좌동	○서울지역전사용자, 광주, 광산군, 여천군, 대전시, 매덕군, 수원시	
	11% (28)	26% (63)	33% (79)	39% (88)	57% (110)	60% (105)

○공급지역문제：지역별 대기오염을 감안 환경청과 협의 결정

〈表-11〉 연도별 저유황유 공급률 현황

(單位：천B/D(%，공급률))

연도 유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경 유	11	10	25	23	43	35	66	48	91	64	111	74
B - C 油	28	11	63	26	79	33	82	38	93	48	119	68
계	39	10.7	88	24.6	122	33.3	148	41.7	184	54	230	71

〈表 - 12〉 연도별 저유황유 공급증가 현황

(單位: 천B/D(%: 전년대비증감률))

연도 유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		%		%		%		%
경유	11	—	25	127.3	43	72.0	66	53.5	91	37.9	111	22.0
B - C 油	28	—	63	125.0	79	25.4	82	3.8	93	13.4	119	28.0
계	39	—	88	125.6	122	38.6	148	21.3	184	24.3	230	25.0

계획이고 확대공급시기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수용 준비기간을 고려, 금년 하반기 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마. 임가공 수출

제 2 차 석유과동 이후 국내유류수요의 계속된 감소추세로 인하여 精油會社의 가동율이 60% 수준을 하회하게 되고 국제원유시황도 공급과잉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현물시장으로부터의 저렴한 원유구매가 가능해지자 지난 82년도 하반기경부터 일부 精油會社에서 유티정제시설을 활용한 原油의 임가공 수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精油業界의 脫不況노력에 대하여는 국내의 석유시장의 여건변화를 감안, 국내유티정제시설을 활용한

국제수지 개선과 精油會社의 경영수지개선 및 국제석유시장에의 수출입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85년도에는 84년도보다 약 14.6%가 증가한 24,794천배럴을 수출하여 수출액도 7억 3천만불이나 되었으며 가동율도 약 12%의 상승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정부는 금년에도 국내석유류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국민경제상 유익하고 精油社의 가동율을 재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티정제시설을 활용한 임가공수출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시정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表 - 13〉 원유 임가공 추진실적 현황

(單位: 천Bbl, 천\$)

	원유처리 (천B/D)	생산	수출 (전년대비%)	수출비율 (%)	잔류	잔류율 (%)	수출금액	평균단가 (\$/Bbl)
1982	10,078 (27.6)	9,726	4,579	47.1	5,147	52.9	165,753	36.20
1983	25,373 (69.5)	24,484	15,843 (246.0)	64.7	8,641	35.3	490,661	30.97
1984	28,317 (77.4)	27,312	21,694 (36.9)	79.4	5,618	20.6	648,776	29.91
1985	33,333 (91.3)	32,139	24,794 (14.3)	77.1	7,345	22.9	729,230	29.41
1986	41,365 (113.3)	39,885	31,550 (27.2)	79.1	8,335	20.9	909,639	28.83

註: *은 계획임

IV. 맺는말

제 2차 석유과동 이후 연 3년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油類수요가 국내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8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70년대의 연평균 10% 이상의 큰 수요증가 추세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脫石油化 및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정 속에서 3% 내외의 완만한 수요증가세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6년도의 국내 석유제품수급계획을 전망해 볼 때 中東지역의 정세가 일말의 불안으로 상존하고는 있으나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현상 지속과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로 일단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에너지수급이란 모자라도 걱정이지만 남아도 문제이므로 금년도 석유제품수급계획상에 나타난 몇가지 특성과 해결과제를 언급해 본다. 우선 원유공급에 있어서는 현물성 장기계약분을 포함한 순수현물시장에서의 원유도입이 65-70% 수준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油類수요패턴이 선진국화 되어가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휘발유, 나프타, LPG 등의 輕質油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상당량을 수입하여야 할 형편인 반면 B-C油와 같은 重質油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일부 수출해야 할 입장이다. 또한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저유황연료유와 가스연료도 이제는 油類수급계획에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부 油種의 수입물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수급상황 변동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문이다. 이러한 일부 油種간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정부의 가격정책적인 측면과 精油社 스스로 장·단기적 국내 석유수요 패턴 및 自社 수급동향에 알맞는 원유도입 및 정제시설(탈황, 분해시설 포함)의 설비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 한해도 석유제품 수급이 안정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처인 精油社와 수요처인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다. ◆

□ 産油國短信 □

OPEC 油價安定 위해 산유량 감축전망

British Petroleum Co. Plc(BP), 社長인 Peter Walter 경은 OPEC가 油價하락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들의 산유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非OPEC 산유국들은 OPEC의 산유량감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Peter Walter 社長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OPEC가 油價지지를 위해 非OPEC의 산유량을 감축시켜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Peter Walter 社長은 蘇聯, 美國 등과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감축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400만b/d 이하인 北海産油량이 수요가 4,500만b/d에 달하는 자유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색채가 다양한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산유량 감축에 관한 어떠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단지 OPEC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OPEC가 가격상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 한다면 빈곤한 OPEC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OPEC를 포함, 우방국과 경쟁국들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非需期인 봄에 油價가 더 떨어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OPEC가 산유량을 감축, 봄에 높은 油價가 유지될 것이며 여름에 또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